



# 선생님이 무서워요

육복연/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가슴도 큰 편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남자 체육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지난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안가져가서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 제 엉덩이를 치시면서 체육복을 왜 안입고 왔냐고 물으시길래 아무 말도 안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긴, 니 볼륨이 장난이 아니라서 맞는 게 없겠다."라구 하시며 제 엉덩이를 툭툭치고 막 만졌지만, 전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벌칙으로 수업이 끝난 후에 남으라고 해서 남았더니, 제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려서 브래지어끈을 한번 툭기더니, "너 가슴 사이즈가 몇이니?" 라구 물어보시는 거예요.

며칠 후에 준비물을 안가져가서 저 혼자 남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전 선생님 손을 뿌리치고 나왔는데,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고, 학교에 가기도 싫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죠? 좀 도와주세요.

## 정

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학교에서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괴로워하는 여학생이시군요.

학교 선생님이라면 계속 만날 사람인데, 그것도 선생님이 학생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것은 정말 기분이 나쁜 일이지요?

더구나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에게 가슴이 큰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나, 00님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합부로 만진다는 것은 선생님의 호의가 아닌 성폭력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기는 몸이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몸가짐과 언어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선생님의 위치인데, 제자의 몸을 만지는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지요.

00님이 선생님의 그런 행동은 기분이 나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몸을 만지는 것은 선생님의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심한 행동이며, 앞으로도 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지 걱정이 되는군요.

00님이 당한 일은 00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의논을 하는 것이 창피하다거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엄마와 함께 의논을 해서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든, 직접 체육 선생님께 그런 의사를 전달하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성희롱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반드시 어른들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엄마는 항상 00님의 편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00님에게는 맑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의 시간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들이며, 분노와 창피, 불안, 억울함 등은 00님의 몫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여고 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